

▷▷▷ 2026년 4월 23일

KIWOOM **매크로** 따라잡기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Economist 김유미 / RA 김정현**유동성 재편과 대기성 자금**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금 흐름은 저축성 예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 그리고 CMA·MMF 등 단기 대기성 자금으로 이동하며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M2 증가율 반등은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통화량 확대를 넘어 자금의 성격이 장기 예치에서 단기 유동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실적 개선과 정책금융 공급이 결합되며 자금이 단기 유동성 성격으로 축적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자금은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까지 시차를 두고 금융권에 머물며 대기성 자금 규모를 확대시키고 있다. 결국 현재의 유동성은 투자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라 투자 시점이 유보된 상태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경우 수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풍부한 유동성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신중한 대응과 긴축적 기초를 유인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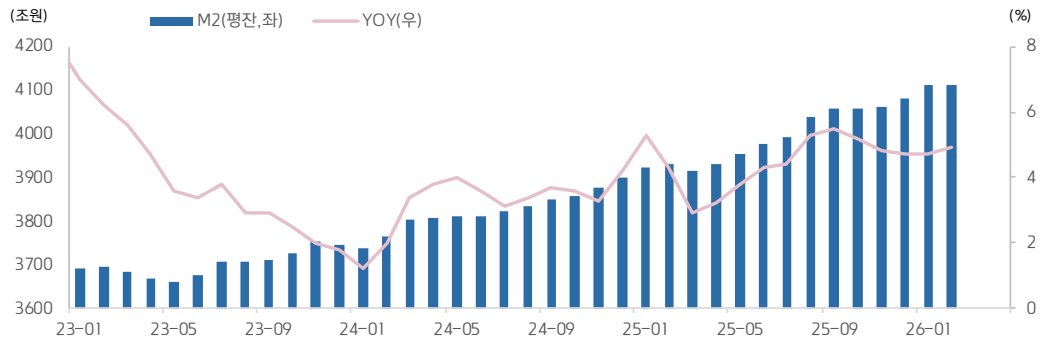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금 흐름의 구조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은행 수신은 저축성 예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CMA·MMF 등 단기 대기성 자금으로의 쏠림도 강화되고 있다. 이는 시중 유동성이 과거 대비 충분히 축적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경우 수급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M2 증가율(평잔)은 전년동월 대비 4.9%를 기록하며 전월(4.7%) 대비 반등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둔화되던 흐름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통화량 증가를 넘어 자금의 성격 변화가 동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예금 내에서는 저축성 예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으로의 이동이 이어지며, 자금이 장기 예치 중심에서 단기 유동성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러한 변화는 더욱 분명하다. 2월 수시입출식 예금 증가율은 전년동월 대비 8.4%로 전월(6.0%)보다 확대된 반면, 만기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증가율은 -0.1%를 기록하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자금이 '장기 예치 자금'에서 '단기 대기성 자금'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시입출식 예금은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 대기 자금이 머무르기에 적합한 형태로, 현재 금융시장의 유동성 구조가 보다 민감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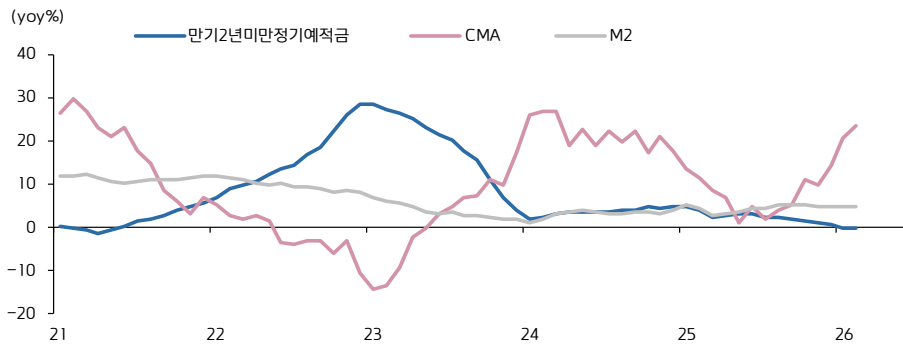
이와 함께 CMA와 MMF 등 단기 금융상품으로의 자금 유입도 지속되고 있다. 2월 기준 CMA 증가율은 두 자릿수로 확대되었으며, MMF 역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 대비 14%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월 들어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함께 투자심리가 일부 회복되며 투자자예탁금이 4월 20일 기준 170조원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자금이 시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투자 시점을 탐색하며 단기 금융상품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M2 규모와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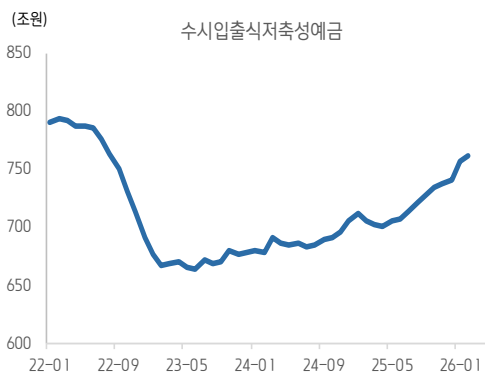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M2 규모는 평산 계절조정 기준,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평간 원계열 기준

한국 M2 내 만기 2년 미만 정기예적금, CMA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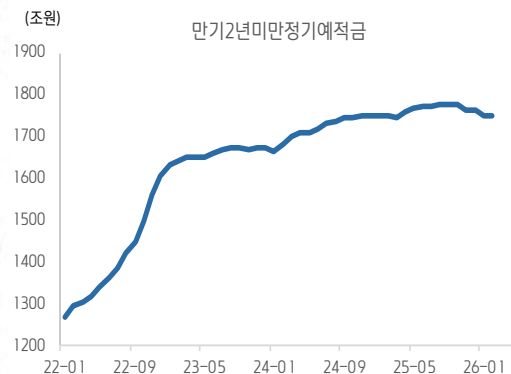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M2 내 수시입출식 예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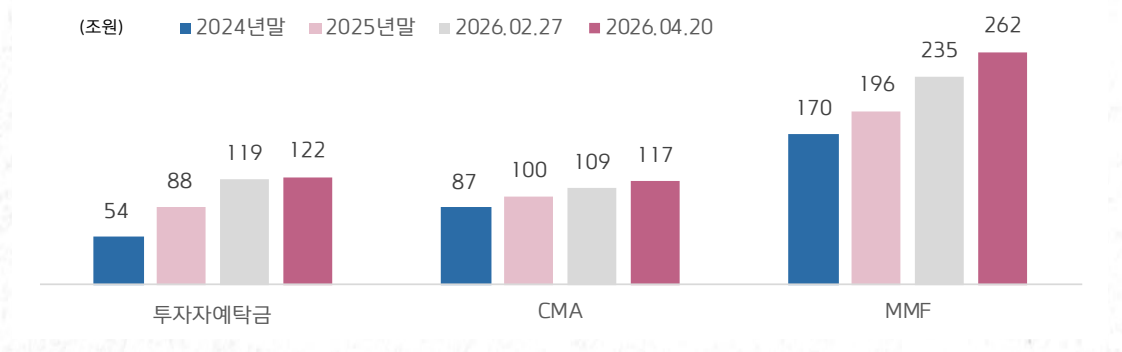


한국 M2 내 만기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M2는 평산 계절조정 기준

## 대기성 자금 종류별 증감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경제주체별로 보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분명해진다. 가계의 M2 증가율은 전년동월 대비 2.7%로 둔화된 반면, 기업은 6.7%로 확대되었고 기타 금융기관은 20.4%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기업 예금은 저축성보다 요구불 및 수시입출식 예금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업이 유동성을 확보한 채 투자 시점을 조절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 예금 증가는 실적 개선과 정책 요인이 결합된 결과로 판단된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현금흐름이 확대되었고, 이는 성과급 지급 및 협력사 대금 지급 등을 통해 가계와 중소기업으로 확산된 이후 다시 금융기관으로 유입되며 예금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정책금융 공급 확대도 기업 유동성 증가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2025~2026년 확장적 재정 기조 아래 정책금융을 통해 기업과 가계에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며, 2026년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총 252조원으로 전년(247.3조원) 대비 1.8% 증가했다. 이 중 150조원이 인공지능 등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집중 공급될 계획으로, 전년 목표(138조원) 대비 약 8.9% 확대된 규모다.

다만 이러한 자금은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까지 일정한 시차가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자금은 기업 계좌에 요구불 및 수시입출식 예금 형태로 일시적으로 축적되며, 시중 대기성 자금 증가로 연결된다. 즉, 정책금융 확대는 단기적으로 기업 유동성의 대기성 자금 풀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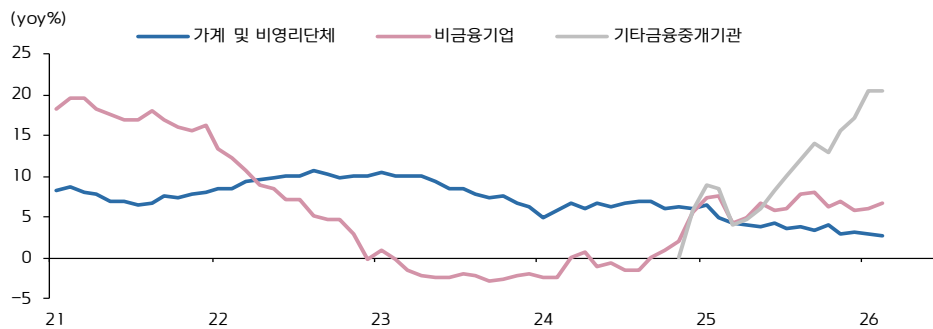
결국 최근 한국의 자금 흐름에서 주목할 점은 통화량 자체의 증가보다 자금 성격의 변화다. 저축성 예금과 장기 예치 자금이 수시입출식 예금과 CMA·MMF 등 단기 대기성 자금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시중에는 언제든지 이동 가능한 유동성이 두텁게 축적되고 있다. 이는 투자 의지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투자 시점이 유보된 상태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동성은 향후 자본시장 수급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경우, 대기성 자금은 위험자산으로 빠르게 유입되며 수급 측면에서 의미 있는 상승 압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반대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에는 자금이 단기 금융상품에 머물며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자금 흐름 변화는 단순한 수신 구조의 이동이 아니라,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 기반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전환의 방아쇠는 결국 시장 신뢰 회복의 속도와 강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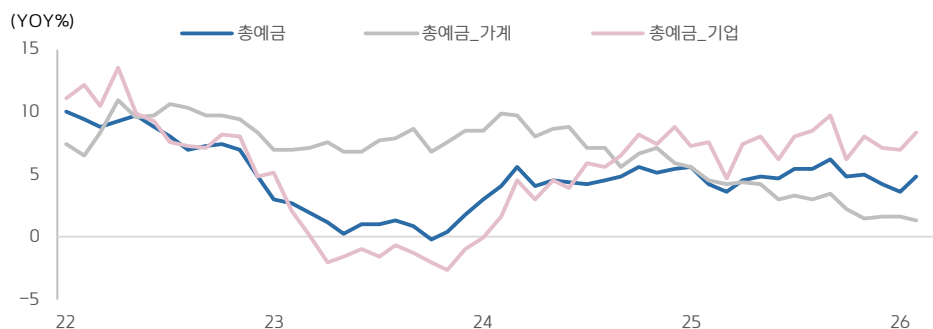
또한, 이와 같은 환경은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판단에도 일정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기성 자금이 잠재적인 수요로 전환될 경우 자산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은 완화 여력보다는 신중한 대응과 함께 상대적으로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할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한국 M2 내 경제 주체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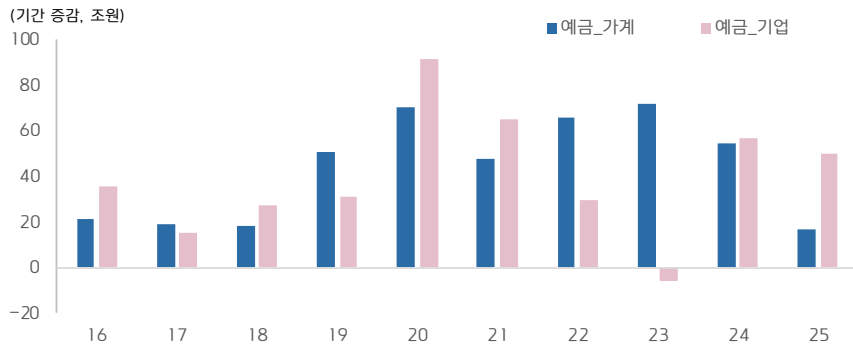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한국 총예금, 가계와 기업 예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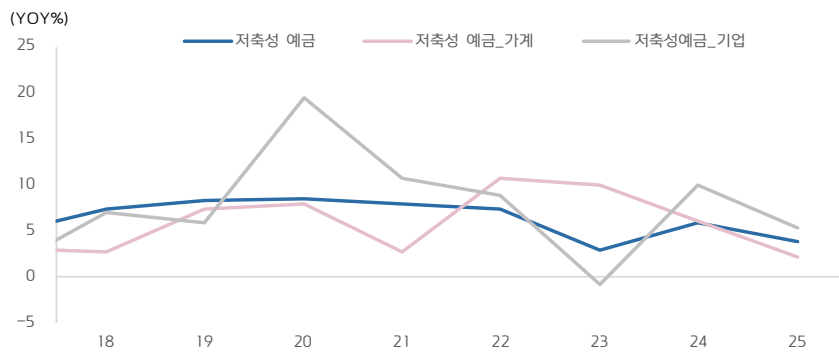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한국 가계 예금과 기업 예금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한국 가계와 기업 저축성 예금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2026년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자금공급계획

분야	주요 산업(부문)	공급 규모
첨단전략산업 육성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 원전·바이오·인공지능·핵심광물(신설)	42.5조원
미래유망산업 지원	나노·수소·컨텐츠·ICT·해양수산·교통·항공우주·탄소소재·양자·방위·농식품·통신·딥사이언스·태양전지·물산업·풍력산업(신설)	24.7조원
기존산업 사업재편 산업구조고도화	산업위기대응·자동차부품·조선·철강·정유·섬유·항만장비·광학·플라스틱·시멘트·석유화학·태양광	32.2조원
유니콘·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중소기업 등의 글로벌기업 도약·중견기업지원	19.0조원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기계·전기산업 및 기업 경영애로 해소	31.8조원
		<b>138 조원 → 150 조원 (+12 조원, +8.9%)</b>

자료: 금융위원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